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8월 15일

vol.127

World Best
Sunbo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14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수정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최금식 대표이사,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공유할 것” 당부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8일 조선해양기자재 공업회관에서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수정 사업계획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는 사업기획팀의 상반기 실적 요약 보고 및 하반기 수정 사업계획 요약 보고를 시작으로 '조선업계 현황

분석'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졌다.

사업기획팀 최희승 차장은 프레젠테이션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대침체에 빠졌던 주요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장기성장세 둔화 추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 세계 조선산업은 해양부분의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호조를 보인 선종의 수요가 대부분 침체되면서 수주량 감소를 기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주량 감소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상반기에 계획했던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낳아 조선산업의 장기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선보공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각 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상반기 전사 실적 보고에 따르면 매출액 106%, 수주액 126%, 연구개발건수 100% 등 5개 지표에서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다. 또한 검사합격률 99.7%, 제품완성도 98.9%, 적기 자

재 입고율 95.8%, 적기 착공 준수율 97%, 생산능력 93% 등 5개 지표에서 90% 이상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전사 실적 보고에 대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표는 하반기 목표를 상향조정해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닌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재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강평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공장의 장점을 배우고, 각 공장의 단점은 전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니즈(Needs)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를 내 일처럼 하는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발 빠른 개선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상반기 전사실적보고회를 통해 우리 회사는 연초에 계획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회사, 문화 경영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우리 회사는 7월 18일(금)과 20일(일), 직원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의 티켓을 지원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고 한국인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오페라 중의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는 '바른 길을 벗어난 여자' 정도로 해석하며, 이 작품을 통해 150여 년 전 사회의 모순과 계급구조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가 1853년에 작곡한 3막 4장의 오페라 명작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했다.

오페라를 관람한 직원들은 공연관람 후 공연장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며 “말로만 듣던 '라 트라비아타'를 직접 관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문화적 소양이 한층 높아진 느낌입니다. 이러한 명작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직원의 문화 감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달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다채로운 분야의 문화 향유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전시나 공연 관람에 있어 비용 부담을 덜어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UN SUNBO RUN 회사안전

안전 앞에 겸손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라!**



2013년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 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8조 원에 이르며 93,000여 명의 부상자와 2,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 평균 255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단지 운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작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끼이거나, 날아온 물체에 맞는 등 매우 단순한 5가지 재래형 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본 안전수칙만 철저히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은 물이나 공기처럼 항상 필요한 가치이며 행복

한 삶을 위한 기본원칙이다.

안전은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경제적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우리 회사는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큰 사고 없이 수년간 산업 발전에 공로하여 13년 산업재해 통계자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고없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각 개인이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 인식과 행동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설마하는 안이한 마음가짐, '눈 감고도 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한다.

선보 가족 여러분! 일터에서나 일상 생활에서나 안전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와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이 달의 책 - 추천인 최흥렬 SM]

알랭 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미디어에 중독된 우리를 일깨우다



- 지은이 : 알랭 드 보통
- 옮긴이 : 최민우
- 펴낸 곳 : 문학동네

*정가 15,000원
반양장본 304쪽 205x14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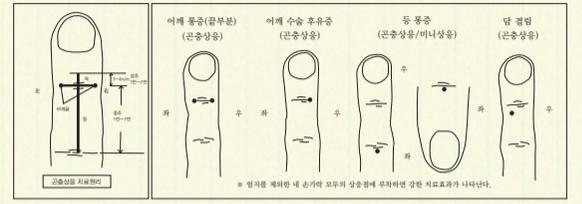
알랭 드 보통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의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 포털과 SNS에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을 검색한다.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업무회의 시간에도 틈만 나면 뉴스를 검색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습관이다.

뉴스는 아무런 사용설명서 없이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법은 배워도 뉴스를 읽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예술작품을 보는 법은 배워도 매 순간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 이미지를 읽어내는 법 또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뉴스는 우리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교육 매체이지 않을까. 뉴스는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알려주고자 하며, 그러면서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대중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작가의 눈에 뉴스는 그만큼 대중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혁명가들이 그러하듯, 만약 당신이 한 나라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미술관, 교육부, 혹은 저명한 소설가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정치체의 신경중추인 뉴스 본부로 곧장 탱크를 몰고 가라"고 말한다.

수시로 뉴스를 검색하지 않으면 초조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뉴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혹시 뉴스는 천천히, 그리고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판단력과 자기를 차분히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왜 뉴스에 열광하는 것일까. 첨단 미디어 시대의 언론은 어떤 사명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 일상의 불안과 곤경을 날렵하게 파고드는 작가 알랭 드 보통. 그는 이 책에서 각 개인의 선생을 자처하게 된 뉴스를 소재로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둘러싼 풍경을 낱알이 묘사하면서, 쇠도하는 뉴스와 이미지들 속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뉴스를 수용하는 방법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어깨 아프고 등이 빠근하다면
압봉요법으로 통증을 날려버려라!



압봉은 침이 인체에 전기적인 자극을 미친다는 이론에서 비롯된 자극도구이다. 패치형 멀미약처럼 생긴 테이프에 알루미늄(이온화 경향이 가장 강한 금속)으로 된 작은 돌기가 솟아 있는 원형 금속판이 붙어 있다. 압봉의 종류는 은색압봉과 금색압봉이 있으며, 돌기의 솟아에 따라 1호, 2호, 6호 압봉으로 구분한다. 압봉요법은 압통점에 압봉을 부착해 환부에 발생한 이상전류를 원활하게 소통 시킴으로써 치료효과를 얻는 원리이다.

압봉의 가장 큰 장점은 침보다 아프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스스로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테이프의 점성이 다할 때까지 재활용도 가능하지만 압봉의 금속이 산화되어 까맣게 변하면 버리는 것이 좋다.

최근 등과 어깨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증에 압봉요법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압통점을 찾아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면봉 혹은 이쑤시개의 뭉툭한 부분을 사용하면 간편하다. 상단의 그림에 표시된 점 부근을 자극해 가장 심한 압통점을 찾아 표시한 다음 정확하게 압봉을 부착해야 한다.

압봉을 부착하면 끝 부분이 돌출되어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이것은 침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압봉을 부착한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호전반응으로 볼 수 있다. 압봉부착 권장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이고, 압봉을 붙이고 30분 후에 떼어내도 약 4시간 정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혹시 압봉을 구하기 힘들다면 펜이나 이쑤시개, 면봉을 이용하여 꾸준히 압통점을 자극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RUN SUNBO RUN 회사교육

2014 진급자 5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예정

2014년 정기 인사사고과(발령일자: 5월 1일)에 따른 진급자 50명에 대한 진급자 교육 '슈퍼 선보인 프로그램'이 8월 29일부터 1박2일 동안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실시된다. 진급자들은 진급 축하와 더불어 진급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고양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받는다.

우리 회사는 교육을 통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교육 제도로 임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진급자 교육도 그 일환이다. 진급자들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급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 있는 자부심! 선보유니텍 영도공장 탐방기 - 공장장 | 이청수 이사



열악한 환경을 딛고 최고로 우뚝 서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선보유니텍 영도공장'을 찾았다. 영도공장은 200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가동을 시작해 현재 2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영도공장의 작업 물량은 90% 이상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수주 받은 물량으로, 2008년 현대미포조선과 첫 거래 이후 지금까지 적기 납품과 우수한 품질로 신뢰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영도공장은 3만㎡(만 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 15%~20%가 Inshop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붕이 없는 그야말로 노천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악천후에는 공장의 15%~20%밖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가 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영도공장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 3년간은 무사고를 달성하기도 했다. 열악한 만큼 더욱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확실한 완제품 생산이 목표

영도공장의 주 생산품은 어퍼데크 블록이다. 선체의 최상층에 있는 갑판과 파이프라인으로 가장 중요한 부

분이기도 하다. 올해 현대미포조선의 선박 66척 중 영도공장은 13척 분의 어퍼데크 블록을 생산했다.

영도공장은 도장, 의장, 선각 공정까지 블록 건조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도장, 의장, 선각 공정이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장으로 특화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고 품질력을 바탕으로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사 중 가장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도공장은 A/S제로, 고객 불만 처리비용 제로를 지향하고 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확실한 완제품 생산이 목표인 만큼 선보패밀리의 전 공장에서 유일하게 10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영도공장의 매출이 다소 부진했다. 올해 2014년에는 지난해의 매출 부진을 만회를 하려고 노력하던 중 기존의 생산 방식으로는 이익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TFT(Task Force Team)'를 꾸리고 지난 8월 7일 발대식을 가졌다. 도장, 의장, 선각의 각 Stage별로 리드타임을 30% 줄여 생산량을 극대화 하여 2015년 현대미포조선의 어퍼데크 블록 17척 분의 물량을 수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TFT 활성화를 이루어 2015년에는 수주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FT의 전면적인 시행은 우리 회사와 협력사가 원활

한 이익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다

영도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청수 이사는 2006년 설립 당시부터 공장을 이끌어 왔다. 실무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청수 이사는 아직도 사무실 책상보다는 현장이 더 익숙하다. '일하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판단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자율적인 직원 양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항상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공장에는 타 공장보다 장기근속자들이 많다. 현장 근로자도 동종업계 최고의 근속 연수를 자랑한다. 이는 회사 이익에 직결된다.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그만큼 진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어도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도공장에서 연 2회 개최하는 워크샵에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사 사장 이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청수 이사는 항상 솔선수범하며 상하관계가 아닌 같은 눈높이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내일의 도약을 다함께 꿈꾸기 위해서이다.

여름의 낭만을 찾아서

여름휴가 사진 공모전

- 응모대상 | 선보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 응모방법 | 서버 그림 사진방 → 공모전 → 2014년 공모전
개인별로 이름 폴더를 만든 후 응모(개인당 3작품 이내)
- 작품선정 | 사진동호회 회원 및 임원
- 작품게시 | 경비실, 식당 및 사보
(식당은 액자 게시 후 개인별 지급)

- 시상 | 대상 1명 : 20만 원 상당의 상품
은상 2명 : 10만 원 상당의 상품
동상 5명 : 5만 원 상당의 상품
- 선정기준 | 가족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와 작품성
- 문의 | TEL : 051. 260. 5538

여름은 우리에게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풍광 속에 빠져보면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어느새 파란 하늘을 닮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의 여름휴가는 어땠나요? 유난히 뜨겁던 올 여름, 그래서 더 낭만적인 여름휴가의 추억을 모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름의 낭만과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이 있다면 지금 「여름휴가 사진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 내 머리는 화분 : 2013대상_이현우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영암공장 | 김대영 직장

Q. 선보 가족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벌써 14년째 선보공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구평공장에서 협력사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선보공업과 계속된 인연으로 2011년 정식으로 선보가족이 되었고, 지금은 목포 영암공장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Q.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자재 지원 및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전 자재 파악으로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Feedback 작성으로 오작률을 줄이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들이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및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업무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원칙입니다. 요행만을 바라며 '어떻게 하다가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제품의 완성도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다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져 더 좋은 회사, 행복한 회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나요?

처음 입사할 때 '프로가 되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분야 진정한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Q.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 다니는 회사가 아닌 선보공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나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일류 회사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 칭찬은 보람과 성실함 속에 모든 팀원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



구평2공장 | 공금성 주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구평2공장에서 배관과 의장을 하고 있는 입사 5년차 공금성입니다.

Q. 이번 호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 되셨는데 소감을 말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일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부족하지만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Q. 근무하시며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늘 보람을 느끼지만 열심히 만든 제품이

납품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10여 명에서 적게는 7~8명이 한 조가 되어 움직입니다. 늘 즐겁게 일해줘서 고맙고 팀장님은 안전을 챙겨주셔서 항상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Q. 다음 칭찬 주자를 선정해 주세요.

같은 팀에 있는 전석연씨를 추천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많은 땀을 흘려가며 소신껏 일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 다대1공장 김광수 (08.15) 최두영 (08.20)
- 강명규 (08.03) 이형백 (08.20)
- 정준영 (08.14) 박찬수 (08.27)
- 이영근 (08.13) 권성현 (08.21)
- 김규성 (08.05) 신용화 (08.01)
- 배희진 (07.21) 김동관 (07.11)
- 유무성 (07.11) 이태훈 (07.16)
- 이옥희 (07.17) 박규경 (07.02)
- 정호경 (07.15) 박찬수 (08.27)
- 박귀남 (07.16) 최환영 (08.29)

구평공장

- 구평1공장 양승현 (08.28) 이태욱 (08.20)
- 전동혁 (08.31) 김해근 (08.21)
- 이유리 (08.15) 김영수 (07.12)
- 김정환 (07.15) 이태식 (07.07)
- 구평2공장 권오용 (08.02) 김광욱 (08.05)
- 강화진 (08.08) 김병록 (08.10)
- 강보영 (08.11) 조상연 (08.16)
- 이동준 (08.17) 황 철 (08.18)
- 이연호 (08.23) 공대성 (08.25)
- 여태운 (08.25) 정태교 (08.25)
- 신현봉 (08.25) 황길성 (08.27)
- 안진원 (08.28)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 다대1공장 최동배 (08.05) 양윤모 (08.18)
- 이옥렬 (08.13) 최경호 (08.13)
- 김은식 (08.06) 고상현 (08.06)
- 박현수 (08.05) 이우석 (08.08)
- 노재태 (08.02) 김정민 (08.07)

구평공장

- 구평1공장 표종원 (08.24) 이태욱 (08.02)
- 구평2공장 김영호 (08.24)

영도공장

- 영도공장 이영곤 (08.10)

신입 선보인 소개



기술연구소 | 박성호 부장



기술연구소 | 이성림 과장



구평 생산관리 | 김천기 계장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